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S the 1 요리학원
여름 大 특강 개강
카빙(Carving) 과일조각장식반 수강생모집
에스더원요리학원 (062)385-0723,384-1984

제1780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7월 6일 (음력 5월 22일) 금요일

☑ 정부 토지개발 지원 난색 ☑ 농촌공사 불참 ☑ 내국인 면세점 불허

"J프로젝트, 이래선 투자 못한다"

전경련, 사업 규모 대폭 축소 검토 파문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한 전경련 컨소시엄(이하 전경련)이 과도한 토지개발비용을 이유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세부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암·해남 일대 1천600만여㎡(485만 평)의 부지를 2만5천여 명이 상주하는 기업도시로 만들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 단순 관광단지로 축소개발하는 것은 물론 공사기간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전경련은 5일, 영암·해남 일대 기업도시 예정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성토비용과 호안축조비용 등 타지역 기업도시 개발사업에는 불필요한 5천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해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가 토지개발사업비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다, 개발예정부지 소유권자인 농촌공사 역시 지난 5월 사업참여를 유보키로 한 점, 그리고 내국인 면세점 등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집객시설 유치가 무산된 점 등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특히 전북지역 기업도시 예정지인 무주의 경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3.3㎡(1평)당 12만 원이 들지만 영암·해남의 경우 간척지는 21만 원 그리고 해안은 17만 원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가 과도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려던 당초 계획을 보류하고, 3~4개월간 세부사업 계획을 재검토·수정한 뒤 오는 10월께나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인센티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기업으로서 사업성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도시형 기업도시를 전원형 기업도시로 바꾸는 등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수익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경련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사업방향을 바꾸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사업비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은 전남도의 손을 떠나있는 문제인 만큼 현재로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컨소시엄은 금호건설과 대림산업, 삼환기업, 관광공사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F1경주장 부지 인근 영암지역 917만4천㎡, 해남지역 683만1천㎡를 4조3천329억 원을 들여 인구 2만5천 명이 상주하는 기업도시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에코돔과 카지노 콤플렉스(단지), 포켓아시아, 파빌리온, 해양스포츠 단지, 테마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실버 예술단 공연 5일 광주 공원에서 열린 실버연예예술단 창단 공연에서 백발의 노인들이 멋진 색소폰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55세 이상 은퇴 예술인들로 구성된 실버연예예술단은 앞으로 복지관, 요양원 군부대 등에서 무료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 수능 쉽게 낸다"

교과내용 반영…8월28~9월12일 원서접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5일 치러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6일 공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정강정 평가원장은 "이번 수능 시험은 교과 과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평이하게 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9면〉

2008학년도 수능은 전년에 비해 언어 영역의 경우 문항 수가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시험 시간이 90분에서 80분으로 줄었고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성적을 등급(1~9등급)으로만 표기하는 부분이 달라졌다.

성적 통지표에 영역과 과목이 표기되는 것은 동일하나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제공하던 것을 이번 수능부터는 등급만 제공하며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출제 기본 방향은 제7차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며 범위는 고교 2·3학년 심화 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각 시험 지구별로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지며 응시 원서는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복무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별 제출할 수 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최종 성적 통지일은 12월 12일이다.

원서를 접수해 접수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시험 장소에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등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 필기구는 개인 휴대할 수 없다. /연합뉴스

평창 실패 아쉬움 털고

"여수 엑스포 올인하자"

강원도 평창이 5일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자 여수시를 비롯한 전남지역민들은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전에 '올인'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평창은 5일(한국시간) 오전 과테말라에서 열린 제119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의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은 소치에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무릎을 꿇었다.

이날 오전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따라 '평창 확정 여세 몰아 세계박람회 유치하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었던 여수시 공무원들은 뜻밖에 '평창이 탈락했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수시 공무원과 시민들은 특히 '평창 탈락'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 인천 아시아게임 유치에 이어 평창이 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할 경우 세계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국제행사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어 여수의 세계박람회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시각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치밀한 외교전략 필요"

여수시 세계박람회 지원단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을 경우 세계박람회 유치를 놓고 여수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로코와 폴란드의 견제가 심해졌을 것"이라며 "남은 4개월 동안 정부와 온 국민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 국가 지도자들까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더욱 치밀한 외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전남도와 여수시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보다는 개최지가 결정되는 오는 11월 27일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